

# 경제

Biz & Economy

**8 광주일보**  
제17528호 2006년 8월 17일 목요일

<b>주가</b>	<b>환율</b>	<b>금리</b>
+20.50 1,315.61 (코스피지수)	-0.60 965.20원 (원/달러)	-0.01 4.80% (3년만기 국고채)
코스닥지수	548.07 (-1.79)	
다우 (15일)	11,230.26 (+132.39)	
나스닥 (15일)	2,115.01 (+45.97)	
닛케이	16,071.36 (+255.17)	
엔-달러 환율 (도쿄 17:00기준)	116.04엔 (-0.05)	
유로 달러 환율	1.2789달러 (+0.36)	
3년만기 회사채	5.13% (보합)	
클레리	4.50% (+0.01)	

## 대림산업, 금여랭킹 1위 건설부문 월평균 683만원

올 상반기 성장사 가운데 대림산업 건설부문 직원들의 주머니가 가장 두둑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석유, 화학, 가스 등 1인당 영업이익이 많아 전통적으로 임금 수준이 높은 기업이 상위권에 대거 포진했으며 대표기업 삼성전자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급여가 줄어들며 10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16일 증권선물거래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6회계연도 반기보고서를 제출한 587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가운데 직원수가 100명이 넘는 519개사가 상반기에 지급한 직원(임원 제외) 1인당 월 평균 급여는 305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급여가 가장 많은 곳은 대림산업 건설부문으로, 상반기에 직원 한 사람에게 평균 4천100만원(월 683만원)을 지급했다. 대림산업 유휴부문도 2천800만원(월 466만원)을 지급해 39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해 상반기 급여 1위를 기록했던 SK가스는 올 상반기에는 3천68만원(월 511만원)을 지급하는데 그쳐 14위로 떨어졌다.

대림산업 건설부문에 이어 건설회사인 고려개발이 3천705만원(월 617만원), 방송사인 SBS가 3천550만원(월 591만원)으로 2, 3위를 차지했다.

회계사, 변호사 등 고급 인력만으로 직원 구성이 이뤄져 고액 연봉을 자랑하는 지주사가 직원이 100명이 되지 않아 분석에서 대거 제외된 가운데 외환은행 국내 직원은 상반기 3천390만원(월 565만원)을 받아 4위를 기록했다. 작년 상반기 2천920만원과 3천500만원을 지급했던 두산중공업과 한화석화 등 올 상반기에는 호전된 실적을 바탕으로 3천330만원(월 555만원)을 지급해 나란히 공동 5위에 랭크됐다. 연합뉴스

## 시중은 '금리 가변형 대출' 앞다퉈 출시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고정금리나 변동금리로 변경할 수 있는 금리가변형 주택담보대출 상품 판매에 적극 나서고 있다.

최근 금리 상승에 따른 고객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 고정금리 대출상품의 비중을 높여려는 금융감독당국의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16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달부터 장기 모기지론의 거치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중도상환 수수료도 대출액의 10%를 넘지 않을 경우 면제해주고 있다.

또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대출금리를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전환하는 상품도 출시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최초의 3년인 은행장" "고졸 은행장"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라 회장은 선린상고를 졸업한 뒤 59년 농업은행에서 은행원 생활을 시작했다. '선균은 리더십'과 '정의로 사로잡는 세심함'을 갖췄다는 평을 받고 있는 그는 조흥은행 인수위 통합자임으로 진통을 겪던 때의 일화도 유명하다. 통합자임을 하던 두 은행 부서별 직원 상견례 계획을 보고받고 "미팅 시간을 오후5시로 잡고, 종료후 무조건 술집으로 가 만취할 때까지 폭탄

국민은행도 지난 3일 'FOR YOU 장기대출'의 기본금리를 7.35%에서 7.05%로 0.3%포인트 낮추는 등 금리를 0.3~1.3% 포인트 인하했다. 또 기존 3년과 5년인 고정금리 적용 기간을 3년으로 통일했다. 고정금리 적용 기간이 5년일 경우 연말정산을 받을 수 없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일부 은행들은 리모델링 차원을 벗어나 신상품 개발에 나서고 있다. 우리은행은 다음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혼용된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고 외환은행도 금리 가변형 상품 도입을 위해 전산과 약관을 검토하고 있다. /정필수기자 bun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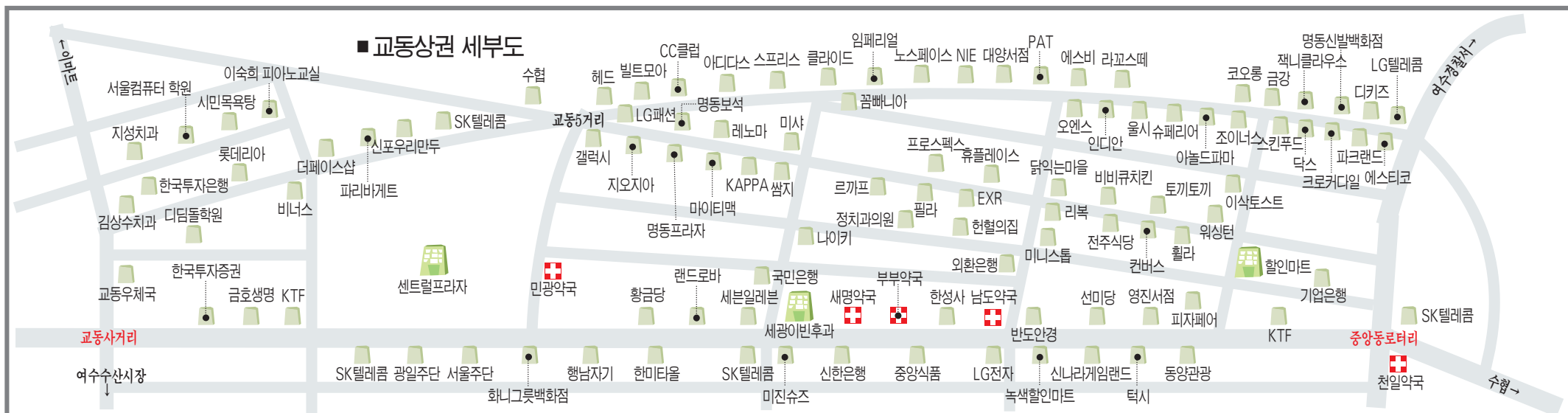
## SM3 승용차 1,920대 리콜

건설교통부는 르노삼성자동차에서 제작, 판매중인 SM3 승용차 1천920대에 제작 결함이 발생,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9일까지 생산된 승용차로 차 앞부분의 엔진실 덮개(bonet)를 닫았을 때 고정해 주는 장치가 응결 불량으로 잠금(Lock) 기능이 저하할 수 있는 결함 때문이다.

회사측은 17일부터 서비스 및 협력정비공장에서 관련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해 준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전남상권 분석 3



## 3麗 통합후 쇠퇴...엑스포로 부활 기대

### 신발·의류·소품점 등 빼곡...5거리 일대 '패션 1번지' 대형매장 잇단 입점에 서시장 등 재래시장 맥 끊길판

수신항 등 주요 교통·행민시설을 끼고 발전해왔다. 상권의 범위는 10만9천여명으로 의류 및 주단, 재래시장 등이 여수상권의 명맥을 잇고 있다.

교통5거리 일대의 핵심상권에는 각종 브랜드의 옷가게와 신발가게, 패션소품점 등이 빼곡히 들어서 있다. 여수의 '패션 1번지'답게 10대 중반~20대 초반이 유행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LG패션 점포의 경우 올해 공시지가가 평당

교통5거리 상급지의 20평형 점포는 보증금이 6천500만~7천만원대를 호가하고 있지만 실거래가는 6천만원을 밑돌고 있다. 그만큼 건물주와 세입자간 입장차가 크다는 얘기가.

교통5거리 상급지의 20평형 점포는 보증금이 6천500만~7천만원대를 호가하고 있지만 실거래가는 6천만원을 밑돌고 있다. 그만큼 건물주와 세입자간 입장차가 크다는 얘기가.

여수의 경우 지난 2001년 이마트 입점을 시작으로 지난해 11월 롯데마트 여천점, 지난 5월 롯데마트 여수점 등이 잇따라 문을 열면서 기존 상권을 압박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교통 인근에 위치한 서시장은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각종 농산물과 생선류, 소규모 식당 및 의류상점 등이 여수 재래시장의 맥을 잇고 있지만 최근 인근 국동에서 롯데마트 여수점이 들어서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여수동상권=최근 4~5년새 구 여수권의 핵

심상권으로 자리매김했다. 여수 제2청사와 해양경찰서 등 관공서와 풍부한 유행인구를 바탕으로 비교적 단기간에 독립상권을 형성했다.

주요 상권의 범위는 6만5천여명에 불과하지만 여서동과 문수동에만 4만8천여명이 거주할 만큼 배후 인구가 풍부하다. 특히 상권 외곽으로 공공 1~2단지, 부영 6·7차, 현대아파트 등이 밀집한 데다 20대 이상의 외부인구 흡입력도 강한 편이다.

### 여서동, 음식점·호프집 등 유흥업 성업

옛 송원백화점을 중심으로 의류점, 음식점, 대형 호프집, 유흥업소 등이 성업중이다. 임대가는 상급지가 평당 350만원(1층 기준)으로 20평형 점포의 경우 보증금이 6천500만원선이다. 특히 대형 호프집 등 인기 점포의 경우 관리금만 4천만~5천만원에 달할 만큼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다만 지난해 9월 제2청사와 해양수산청청사 '빅딜' 이후 상권이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는 뚜렷한 상권 침체의 징후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업종별 특화전략 마련이 필요한 곳이다. 이밖에 오는 2010년 완공 예정인 인근 웅천택지지구개발도 향후 여서동상권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최경호기자 choice@/여수=강성훈기자 kangsw@kwangju.co.kr  
※다음 상권분석은 구 여천상권입니다.

## 여수 교통 상권

구 여수권은 교통과 여서동을 중심으로 한 전남 동부권의 중심상권에 해당한다. 하지만 3麗 통합후 상권이 크게 위축되면서 상인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 여부가 상권 부활의 최대 관건으로 꼽힌다. 구 여천권은 여수 제1청사를 중심으로 주요 관공서와 상가들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지역내 핵심상권으로 부상했다. 여수수방사가 위치한 중앙상가상권과 흥국체육관 인근의 흥국상가상권 등이 독립적인 상권을 형성했다. ◇교통상권=구 여수권의 상징적 상권이다. 충무동과 중앙동의 핵심부로 여수역과 여객터미널, 여



## “1,000원 더 싸라” 羅회장 판단 적중

### LG카드 인수, 라응찬 신한금융 회장의 힘

### 과감한 배팅·강력한 리더십 갖춰 조흥銀 통합 이어 또 한번의 불패신화

90%에 6만7천500원선을 적어낸 하 나금융보다 간발의 차로 가격 면에서 앞섰다.

“최초의 3년인 은행장” “고졸 은행장”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라 회장은 선린상고를 졸업한 뒤 59년 농업은행에서 은행원 생활을 시작했다.

“선균은 리더십”과 “정의로 사로잡는 세심함”을 갖췄다는 평을 받고 있는 그는 조흥은행 인수위 통합자임으로 진통을 겪던 때의 일화도 유명하다. 통합자임을 하던 두 은행 부서별 직원 상견례 계획을 보고받고 “미팅 시간을 오후5시로 잡고, 종료후 무조건 술집으로 가 만취할 때까지 폭탄

주를 마셔라”고 주문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강한 스태인을 갖게 된 두 은행 직원들은 지금도 털없이 서로에게 잘 적응한다.

그는 조흥은행의 성공적인 통합에 이어 LG카드 인수에 성공함으로써 47년 금융인생에서 또다시 전성기를 맞게 됐다.

그러나 라 회장의 배팅 가격이 너무 높다는 지적도 있다. LG카드 적정 인수가격이 최대 주당 6만5천원 정도라는 것이 금융계의 견해. 신한지주는 주당 3천원, 총 3천200억원 정도 비싸게 산 셈이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한국경제 너무 빨리 늙었다

### 저출산·고령화·주 5일제 등 생산성 저하

### 삼성경제연 보고서

한국 경제가 외환위기의 후유증과 정책 대응 미숙 등으로 구조적 저성장 국면에 빠질 위기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6일 '한국경제 20년 재조명'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경제는 선진화를 달성하기도 전에 조로(早老) 현상을 보이는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0년대 8% 안팎에 달했던 우리나라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2000년 이후 4.5% 수준으로 크게 떨어졌다.

우선 공급 부문에서 저출산·고령화·주 5일제 등의 영향으로 연평균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이 1987~1997년의 1.6%에서 2000~2005년 0.6%로 급격히 낮아졌고, 신규투자 위축으로 연평균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도 같은 기간 5%에

서 2.9%로 낮아졌다. 소비와 투자 등 내수의 성장기여도는 지난 87~96년의 8.9%포인트에서 2000~2005년 3.4%포인트까지 떨어졌다.

더구나 연구소는 앞으로도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모두 성장력 회복을 쉽게 기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라 제한적 노동력 증가와 연구·개발 투자 증가를 둔화가 향후 공급 여력 위축 요인으로 작용하고, 가계부채 및 주택가격 버블 등의 소비 불안요소와 외환위기 이후 보수적 경영 기조에 따른 투자 부진이 계속 내수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연구소는 이 같은 성장잠재력 약화가 외환위기 이후 영·미식 경제 체제를 비껴가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우리 경제 고유의 활력과 자신감을 상실, 경제 주체의 역량이 성과로 제대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미감일	연락처
보현산업	생산직 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8/18	062-956-9600
한국인포데이타	주전남본부	스카이라이프 광주고객센터 상담사	회사내규	08/18	062-360-0503
글로벌광통신	광통신 부동 벤처회사 생산직 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8/18	062-605-9741
넥스스코리아	국내영업 매출 경력사원 모집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8/19	011-721-9050
인포모션	웹디자인, 편집디자인, 멀티프리젠테이션 사원 모집	초대졸/경력1년	회사내규	08/20	062-226-4706
마스터스관광호텔	조리사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8/20	010-9810-7449
퀵스빌건설	비서 신입사원 및 경력사원 모집	초대졸/경력1년	1400~1600	08/20	062-572-5500
수신산업	프라스틱 시술 경력자	고졸/경력3년	2000~2200	08/20	062-956-4011
연호전자	연호정밀 테이날 공정품질관리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8/20	062-449-0772
주연	사무관리/총무부/업무부	고졸/경력3년	회사내규	08/21	062-373-9012
대주그룹	대주그룹 전문직 임원 및 경력사원 모집	대졸/경력5년	회사내규	08/21	062-236-0781
반도수중펌프	일반사무직 및 사무보조 모집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8/21	062-603-4458
알앤피코리아	한남냉동산업 광주지사 정규직 영업사원	고졸/경력무관	1800~2000	08/21	062-959-2663
도서출판 대동문화	집지와 복사디자인 디자이너	고졸/경력2년	회사내규	08/21	062-461-1500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 ‘장하성 펀드’ 기업지배구조 수술

### 빠르면 이달말부터 활동

‘장하성 펀드’에 알려진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펀드(KCGF : Korea Corporate Governance Fund)가 빠르면 이달 하순에 주식시장에 모습을 본격적으로 드러낼 전망이다.

이 펀드는 우선 1~2개 정도의 중견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사들여 지배구조의 개선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펀드의 ‘키맨’(핵심인물) 역할을 하고 있는 장하성 교수(고려대)는 16일

“(KCGF가) 적어도 1개월 이내에 (특정 종목에 대해) 5% 이상 대량 지분변동보고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에서 분리한 경제개혁연대의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조 교수(한성대)도 “KCGF는 중견 상장사중 지배구조 우량기업과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한 기업 10여개에 분산 투자할 예정”이라며 “일정을 확정할 수는 없으나 경제개혁연대의 출범시기(8월 하순)와 비슷한 시점에 1~2개 정도 보유종목 공시를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